



현지 주민에 대한 간흡충 치료제 투약 광경

한·중 기생충 협력 사업 참관기

중국 요령성 조선족 자치구 주민 기생충검사를 마치고

윤 청 하 · 한국건강관리협회 총무기획국장

19 98년 10월 11일 일요일 이른 아침. 김포공항 제 2청사 로비에 입한중 회장, 서울의대 채종일 교수, 필자와 건협 부산지부 최상철 대리가 출국을 위해 모였다. 한·중 기생충 협력사업을 위한 준비물을 최종 확인 점검하고, 건협 하성미 사무총장, 남서중 건강증진국장의 전송을 받으며 일행은 중국 요령성 심양을 향해 출발했다.

이번 중국행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중국 요령성의 조선족 자치구에 대한 기생충 감염 현황 파악과 감염자 치료, 그리고 중국 기생충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 현미경등 검진장비를 비롯한 부대 검진장비와 구충약품 등의 기증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한·중 기생충 교류사업은 1995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나, 한 핏줄을 나눈 조선족을 위한 보

건의료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중국 방문에 거는 기대나 느끼는 감회는 좀 남달랐다.

우리 나라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중국 현지 시간으로 10시 40분 경에 요령성 심양시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요령성 위생방역참 지방병과 쑤칭텐(許景田) 주임의사, 이봉화(李風華) 부주임의사 등 중국측 일행이 나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심양시의 풍경은 이제 막 건설을 위해 꿈틀거리는, 우리의 60~70년대의 근대화 분위기와 흡사했다. 뿌연 하늘, 거리의 자건거 물결, 답답해보이지만 만주별판이란 광활한 대지를 달리는 시원함도 있었다.

방역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호텔에 여장을 풀고, 조선족이 운영하는 근처 고려식당에서 간단한 점심식사

를 한 후 오후 1시 반경에 방역참을 방문했다. 중국의 공공기관은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라서 그런지 풍토병·기생충병을 전담한 지방병과 직원만이 우리를 맞이했다.

허술한 콘크리트 청사는 내부시설, 환경 등 모든 것이 남루했지만 한·중 기생충 협력 사업이라는 대 명제 앞에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참아내야만 했다.

그곳에서 중국측 담당자들과 우리 일행은 향후 일정, 사업 전개 방안 등을 중국 고유의 녹차를 한잔씩 마시며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날 밤 늦게, 연구차 먼저 도착한 한양의대 민득영 학장, 충북의대 엄기선 교수, 연세의대 용태순 교수 등이 합류했고, 12일에는 서울의대 홍성태 교수, 성균관 의대 공운 교수까지 합류했다.

이번 사업은 특히, 요령성에 조선족이 150만이나 살고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조선족의 건강관리에 우선권을 두고 진행되었다. 우선 사업 계획에 의거, 조선족을 대상으로 수집해 놓은 가검물에 대하여 우리 조사원들이 조작·도말·검경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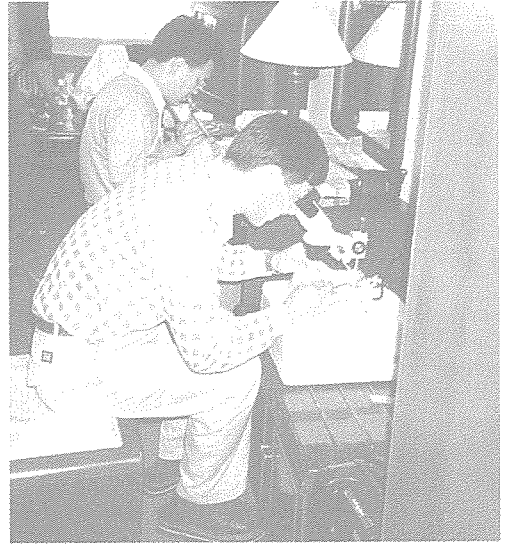
예전, 그러니까 우리 협회가 건강관리사업을 하기 전 기생충 박멸사업을 할 때 주민·학생 대상의 집단 검사 실시 시 가검물을 수집하면서 맡았던 그 쾌쾌한 냄새를 다시 맡게 되고 보니 옛 추억의 향기를 느끼는 것 같았다.

요령성의 여자의사인 왕·손 선생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도와주었고, 상해 기생충병 연구소의 쉰룽치(許隆植) 연구원도 함께 조사에 참여했다.

13일 오전까지 기생충 검사를 완료하고, 오후에는 방역참장, 부참장 등 요령성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기생충 협력사업을 위한 기증식을 가졌다. 임한중 회장과 쉰칭팅(許景田) 주임의사가 기증서에 서명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등 기증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기증품의 내역은 쌍안 현미경 2대, 부란기 1대, 간디스토마 치료제와 일반구충제 4만여정 등이다.

임한중 회장은 기증서를 통해 한국의 과거 기생충관리 성공 사례와 이번 협력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향후 인류의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제의를 해 참석한 내빈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요령성 위생방역참장은 그동안 난치병을 방치했던 자신들의 환경을 설명하고, 이번 지원 덕분에 요령성 주민의 건강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또 한국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 현지검사시설이 없어 판진시 정부제1초대소(호텔)에서 야간에 검사하고 있는 장면

도 기생충 관리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국측 지원을 부탁해 왔다.

기증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일행은 내내 가슴 뿌듯하고 벽찬 희열을 느꼈다. 과거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월감과 긍지를 느껴도 좋을 것이다.

14일부터는 조선족 자치구 현지의 간흡충 및 기생충 감염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하기 위해 판진시(盤錦市)로 향했고, 한양의대 민득영 학장과 몇 사람으로 구성된 또 다른 한팀은 북한 신의주 인근지역인 단둥(丹東)으로 출발했다.

미니버스로 심양을 출발하여 5~6시간 소요되는 판진시 위생방역참에 도착했다. 일행은 시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판진시(盤錦市) 다외현(大窪縣) 웡썩향(榮興鄉)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다.

판진시는 1980년대에 새롭게 형성된 도시로, 도로나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하늘 역시 맑았다. 이곳에서는 식유가 생산되기 때문에 생활수준도 높다. 약 2만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는 판진시의, 웡썩향 조선족 초등학교를 방문한 일행은 현지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측 관계 의사와 함께 감염자에 대한 투약을 실시했다.

이곳 조선족 주민들은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습관 때



▲ 기증식 후 기념 촬영

문에 487명의 검사자 중 21.8%인 106명이 기생충 총란 양성자로 나타났고 그중 간흡충 감염자는 18.9%인 92명이나 양성자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민들 5명 중 1명은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 결과이다.

필자는 이번 검사 과정 및 내용을 액정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낯생 처음 보는 것이라며 필자 주위를 구름처럼 감쌌다. 친구들의 얼굴이 비디오 카메라에 잡히자 모두들 신기한 듯 구경에 여념이 없었다. 2학년 교실에 들어가자 우리 나라 색동 치마저고리를 입은 학생이 많아 반가웠고, 중국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나라 시골 학교에 온 기분이 들었다.

칠판 위의 종이 현수막에 쓰인 '나의 조국, 마음의 조국, 충성하자'라는 글귀를 접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하나 반가운 것은, 이곳 웅쌍향 주민의 20% 정도가 조선족인데 감용범 향장(鄉長)이 조선족이라는 사실. 40대 중반의 김향장은 자매결연한 일본을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한국은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아쉬워 하면서 향후 가장 관심있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위생분야라고 서슴치 않고 주장했다.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는 주민의 건강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탄 섞인 어조로 말했다.

이번에 검사를 받은 주민들은 간흡충 치료제를 투약하여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이 지역의 2~3천명 되는 모든 조선족들이 검사와 투약을 받을 수 있게 해줄기를 소원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조선족 주민의 생명을 구해 주는 일이기에 무엇이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연신 고마움을 표하면서,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록 주중대사관에 편지를 보내어 주민 건강에 앞장 서겠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아직도 생활수준은 낮기 때문에, 보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대책이 없어 한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어느 촌부는 비디오카메라를 보고 "이 사진기로 찍어서 간에 별레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자기도 좀 찍어달라"고 말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더불어서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아프리카·후진국,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이와 같은 기생충관리 사업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요즘들어 금강산 여행이 실현되고 경제·문화적 교류에도 남북간 물꼬가 트여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일도 아주 희망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걸어본다.

필자는 이번 협력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특히 기생충 학자들이 정열적으로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곳 강가에서 채집한 붕어 등 민물고기의 95%에서 감염된 기생충 피낭유충 검사를 지친 여정에도 호텔에서 밤을 세워가며 검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으며, 자신의 제자인 의대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슬라이드 사진을 찍고 검사하고 남은 가검물(변)·참깨·붕어·피래미 등을 보물단지인양 자신의 어느 소지품보다 중요하게 챙기는 모습에서 학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나라의 성공적 기생충관리도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그 저력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이번 요령성 조선족 자치구에 대한 한·중 기생충관리 협력 사업에 참여하기 전 나는, 중국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들뜬 마음이었으나 현지에 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동포,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 땀흘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 모두가 헛되고 부질없음을 깨닫고 잠시나마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제 앞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대국이 되어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보람된 사업들이 더욱 확대·발전되기를 바라면서 1998년도 요령성 조선족 자치구에 대한 기생충검사를 마쳤다. 7